오늘날에도 거룩한 전쟁이 있는가?

(구약성경에서 본 진멸하는 전쟁)

김정우 목사

스티븐 스필버그의 명작 <쉰들러 리스트>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제거하려고 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국적과 인종적 배경을 불문하고 그 폭력적인 집단을 거부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교훈을 감동적으로 던져주었다. 그러나 "다시는 인류 역사에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만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20세기 후반만 해도 캄보디아와 보스니아와 르완다와 코소보에서 대규모의 인종 청소가 벌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

■ 약력 : •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졸업(Ph. D.)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 한국신학정보연구원장

니라, 21세기 벽두에 일어난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9.11 테러 사태 이후에, 미국의 응징으로 일어난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의 전쟁과 이후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과의 전쟁으로, 세계의 역사는 테러와 반테러라는 구도 속에 무서운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미국과의 동맹관계 속에서 이라크 파병 요청을 받고 있으며, 베트남 전쟁 이후 다시 한 번 더 전투병을 파병하여 싸울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성전(聖戰)과 그와 함께 나오는 진멸하는 전쟁(herem)의 의미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의 소위 '성전' 주장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며, 다른가? 다르다면,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 주는가?

1. 문제의 성격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 상황 중에서 원수를 "진멸하라"(herem)는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 난제들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주제들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무차별하게 진멸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현대적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전쟁을 승인하실 뿐 아니라, 원수들을 진멸하라고까지 명하실까? 우리는 여기에서 마치 오늘날 "무한정의"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전쟁을 보는 것 같다. 헤렘 전쟁과 연관된 아래의 두 구절만 보아도, 문제가 심각함을 직감할 수 있다.

(1)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은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수 6:21) 멸하였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짐승까지 멸하였다고 한다.

(2) 선지자 사무엘은 그가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운 사울이 왕권을 어느 정도 확립하자, 옛 출애굽 때 아말렉에게 당하였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삼상 15:2-3)고 말한다. 여기에서는 '젖 먹는 아이'까지 포함되고 있다.

위의 두 본문이 말하는 '진멸하는 전쟁'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신명기에 나타난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herem) 네 하나님 주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신 20:16-17).

어떻게 한 민족이 여러 족속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고백하며, 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아이와 나아가 젖먹이와 짐승들까지 불문하고 죽일 수 있을까? 만약 베트남 전쟁이나 보스니아 전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학살을 명한 자와 집행한 자는 모두 전시 재판감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헤렘 전쟁은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뿐 아니라, "구약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 문제의 범위

그러나 위에 제시된 원수를 전멸시키는 본문이 구약성서의 주류에서 벗어난, 주변적이고 파편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구약성서에는 세속적인 의미의 헤렘 전쟁(왕하 19:11; 대하 32:14)과, 헤렘이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헤렘 전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헤렘 전쟁은 구약 전쟁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실제적인 헤렘 전쟁을 보게 된다.

2.1. 오경

(1)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가나안 땅의 남방(네게브)에 있는 아랏(Arad) 성을 침공하려다 그 왕에게 패배한 후, 아랏을 헤렘으로 바치길 서원하며, 승리 후 이 성과 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친다(민 21:1-3).

(2)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요단 강 동편에 있는 시혼(신 2:34)과 옥(3:6)을 정복하며,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다"고 한다.

2.2. 역사서

(1) 헤렘 전쟁 중 가장 독특한 것은 여리고이다. 이 때, 성에 살고 있던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동물을 모두 칼로 죽이며, 성은 불태우며 전리품은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철로 된 그릇은 주님께 바친다(수 6:17 이하).

(2) 이후 아이 성과 하솔 성도 여리고와 함께 불태우지만, 전리품은 미리 취한다(수 8:26, 10:39, 11:13).

(3) 또한 "여호수아가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웠다.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고 한다(수 10:34-35). 여기에서 라기스와 에글론은 성을 불태우지는 않았다.

(4)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 강 서편의 막게다, 에글론, 헤브론, 드비르, 리브나와 남방 동네들(10:28-40)과 북쪽 동네들(11:10 이하)을 진멸하여 바칠 때, 사람은 죽이지만, 생축과 노략물은 취하고, 동네는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5) 사사 시대 초기에 네게브에 있는 스밧 사람들은 모두 진멸된다(삿 1:17).

(6) 사사 시대 말기에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이 성전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지파를 징벌하겠다는 공적인 맹세를 한다.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중 모든 남자와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한다(삿 21:11). 이런 헤렘 법은 레위기 27장 28-29절을 따른 것이다.

(7)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것은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 때 무방비 상태

의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한 것에 대한 응징이었다(삼상 15).

(8)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은 그 당시까지 살아남은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 대신 노예로 역군을 만드는"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였다(왕상 9:21; 수 15:63; 17:12; 삿 1:19-35).

(9) 바벨론 포로 후, 페르시아 수산 성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미워하던 아각 족속 하만의 음모에 빠져 학살을 당할 뻔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내린 에스더의 헌신으로 구원을 받은 후, 그들의 적 하만을 20미터 정도의 나무에 달아 죽이게 되며, 이후에 수산 성뿐 아니라 각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자 75,000명을 도륙하게 된다(에 9:16). 이 기사 역시 헤렘 법에 근거한 보복으로 여겨진다.

(10)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 이방여인들과 혼인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며,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좇아 삼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몰수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 내리라"고 한다(에스라 10:8). 즉, 여기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재산을 몰수하고 공회에서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시편

헤렘 모티프는 시편에서는 원수에 대한 저주 기원의 형식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다(시 69:22-28; 109:5-15). 특히 137편의 시인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애통하면서,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고 한다(개역개정, 시 137:8-9).

2.4. 선지서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며, 여러 열국들을 진멸하시겠다는 예언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다(사 34:2; 렘 25:9; 슥 14:11; 말 3:24 참조).

정리하자면, 원수를 진멸하는 헤렘 전쟁은 결국,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를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헤렘 전쟁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는, 구약 전체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와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전쟁의 이름으로 집행된 헤렘 전쟁에서 어떤 신학을 형성해 낼 수 있을까를 묻게 된다.

3. 헤렘 전쟁의 의미, 범주 그리고 규칙

3.1. 헤렘이란 용어의 의미

개역성경에서 "진멸하라"는 전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렘(herem)은 "일반적인 용도에서 분리되어 접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증하거나 혹은 바쳐졌기 때문이다"(Encyclopaedia Judaica 8:343). 어근으로 보면, 헤렘이란 단어는 셈어에서 "분리하다, 금하다, 혹은 성별하다"는 뜻을 가진다(TDOT 5:188). 스턴(P. Stern 1991:16)은 이 단어

가 "파멸을 위해 봉헌함, 혹은 파멸에 봉헌함"(consecration to destruction)이란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었다고 결론지으며, 히필형(사역형)에서는 "진멸을 통한 성별"(consecration through destruction)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쟁 밖의 맥락에서 헤렘은 "주께 바친 것"(heherim leyhwh; 레 27:28)으로서,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3.2. 헤렘 전쟁의 범주

(1)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주님께 가증한 자가 되며, 사람은 죽이고, 물건은 태운다("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출 22:20; 신 7:25-26; 13:13-19). 이것은 주로 초기의 법에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된 이후에 배도가 워낙 심각하여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처벌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2)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들은 진멸하며(신 7:1-2; 20:17),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한다(신 20:16).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할까 해서이다"(신 20:18). 이 명령 역시 실제적인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후대로 갈수록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3) 한 개인이 주님께 헤렘으로 바쳐진 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qodesh qodashim). 이것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이것들은 성전에서 팔거나, 혹은 바친 자에 의해 속량될 수 없다(레 27:28).

3.3. 헤렘 전쟁의 규칙

(1) 생존자를 남기지 않는다(신 2:34, 3:3; 수 10:28, 37, 39-40, 11:12, 22; 대하 20:24; 렘 50:26; 왕상 9:21 참조). 사로잡은 적국의 왕과 지도자들은 대부분 죽인다. 남자들은 완전히 제거하며(왕상 11:15), 때로는 몸의 일부를 자르거나(삿 1:6,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다"), 때로는 종으로 취하기도 한다(신 20:11). 여자와 아이들은 전쟁의 노획물이며, 가끔 임신한 여인은 배를 갈랐다(왕하 8:12, 15:16; 암 1:13). 이와 같은 잔인성은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로서 앗시리아 정복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못박았으며(impale) 혹은 머리를 잘랐다. 살만에셀 III세는 소년 소녀들을 아리디 성에서 산 채로 태웠다고 자랑한다. 포로들은 손이나, 발이나, 코, 귀 혹은 혀를 잘랐다. 유아는 반석에 메어쳤다(시 137:9; 나훔 3:10).

(2) 많은 경우에는 육축과 노획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3) 가끔 도시와 노획물을 불태운다(신 7:5, 25, 13:17; 수 6:24, 7:15, 25, 8:28, 11:11, 13).

(4) 헤렘의 규칙을 깨뜨리는 것은 신성모독이며, 규칙을 깨뜨린 자는 대신 "바쳐지게" 된다. 여리고 성에서 헤렘 규칙을 어기고 바쳐진 물건을 탐내고 취한 아간과 그의 가족은 진멸되며, 그의 생축과 재산은 모두 불사른다(수 7:24-26). 이후에,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고 한다(삼상 15:9). 바로 이것 때문에,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왕권을 상실하게 된다.

3.4. 정리

구약성서에 나타난 헤렘 전쟁 중 가장 독특한 본문은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투(수 6장)이다. 이 전쟁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불태워 파괴하며 완전히 무너뜨린다(24절). 이 전쟁은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진멸하는 전쟁"이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성까지 태워버린 경우는 소수이며, 여리고, 아이, 하솔만 불타버리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리고 성은 이후 아합 시대에 재건되며, 하솔 역시 다시 세워진다. 신명기 기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한 것에 대하여,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원리가 열왕기하에 나온다. 이제는 심판받는 쪽이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언약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서 부패했기 때문에 진멸당한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가나안 땅이 원래의 주민들을 토해 낸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다윗 왕조가 끝날 때 즈음에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 내는 지경에 이른다.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 거룩한 전쟁의 도구가 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즉 거룩한 전쟁이 역전된다. 이제 당하는 자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4. 더 넓은 구속사적 맥락

원수를 하나님께 바쳐 진멸하는 전쟁은 보다 더 넓은 "성전"(holy war)의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은 '진멸하는 전쟁'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의 개념은 '진멸하는 전쟁'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도록 부름받는다. 이 때,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으로 나타나며, 전쟁을 친히 치르신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는 구약성경에서 처음으로 주 하나님이 "용사"로 불려진다. 모세는 주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는 용사이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라고 찬양한다. 용사로서 주님은 오른 손을 높이 드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셨다(출 15:6, 12, 16).

주님이 용사라는 칭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처음 나타나지만, 용사로서의 모습은 이미 창세기 3장에 나타난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신 후,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동산을 지키도록 하신다. 주님은 용사로서, 이 거룩한 장소에 죄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스케일로 모든 창조계를 동원하여 타락한 노아 시대 사람들을 다 진멸하신 것이며, 이 때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신다.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창 7:11-12).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불로 진멸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신명기 29장 23절의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훼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역사적인 모델이 되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을 예시해 준다.

출애굽기 32장 26-28절에서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사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인들이 칼로 처형한다. 마치 주님께서 자신의 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헤렘 전쟁을 집행하시는 것과 같다.

5. 결론

구약성서에서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실현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거나(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등), 혹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나라들을 심판하시거나, 때로는 이방나라들(예, 앗시리아나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구약의 성전과 "진멸하는 전쟁"(herem)을 매우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위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성전'과 '헤렘' 모티프는 폭넓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치르었던 모든 전투는 "성전"이 아니었으며, 헤렘 전쟁도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진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나안 전쟁에서도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주님께 바친 경우는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 하솔 성뿐이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전쟁은 냉정한 흡혈귀 같은 전쟁의 신이, 남녀 노소를 무차별하여 한 민족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자신의 백성을 정의로 심판하시며,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의 성전은 근본적으로 한 민족이나 성이나 다른 피부색을 가진 자들을 말살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찰 때"(창 6:5) 이 세상의 죄와 악을 뿌리 뽑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성경의 성전은 제국주의적 야욕의 발로가 아니며, 또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한 나라를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성전개념을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켜,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말시온에 따르면,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며, 신약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보다 저급한 신으로 여겼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구약의 전쟁신학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칼빈은 임종 직전,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을 때, 여호수아 주석을 마쳤다. 그의 건강은 갈수록 약화되었지만, 그는 "더욱 크고 밝은 빛" 속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Henry Beveridge). 칼빈은 "교회에 대한 유언으로,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선포한 모든 교리체계를 엄숙히 비준하는 작업"으로 여호수아 주석을 썼다고 한다. 그는 여리고의 멸망에 대해,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명

령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비인간적인 학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공의롭게 이 나라들을 멸하시도록 정하셨으므로, 이것은 모든 토론을 끝내어 준다"고 말한다.

우리는 구약의 전쟁과 송두리째 원수를 주님께 바치는 헤렘 전쟁을 보며,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최후의 심판이 역사 속에 먼저 침범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가나안 일곱 족속의 진멸과, 여리고와 아말렉의 진멸은 죄에 대한 주님의 최종적 심판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믿는다면, 구약에 나타난 저 비참하고 냉혹하게 보이는 진멸하는 전쟁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민족주의적인 아집과 욕심에 이끌려 이웃나라들에게 소위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전과 헤렘 전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허울 좋은 이데올로기라 하더라도 외적인 차이점(인종, 피부, 성, 계급)에 근거하여 우리와 다른 자를 제거하려는 소위 '성전'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약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전정한 성전은 "거룩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드리는 모범을 본받으며, "나와 다른 자, 모든 계층의 사람들"까지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고 포용하며 관용하고 나아가 그들을 더 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까지 인도하려는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한다.

〈인용 및 참고문헌〉

Encyclopaedia Judaica. *Jerusalem.* "Herem".

R. Goetz, "Joshua, Calvin, and Genocide." Theology Today. pp. 263-74.

Paul Hanson, "War and Peace in the Hebrew Bible." Interpretation 38(1984): 341-62.

G. H. Jones, "Holy War or Yahweh War?" VT 25(1975): 642-58.

J. P. U. Lilley, "Understanding the Herem." Tyndale Bulletin 44(1993):169-77.

Tremper Longman, III, 「거룩한 용사」(솔로몬, 1996), 성종현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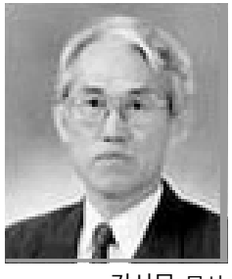
Philip D. Stern, *The Biblical Herem: A Window on Israel's Religious Experience.* Brown Judaic Studies 211 (Atlanta: Scholars Press, 1991). pp.227-34에 있는 인용 논문을 보라.

_____, "The Herem in 1Kgs. 20:42 as an Exegetical Problem." Biblica 71(1990): 43-47.

_____, "*1Samuel 15: Towards an Ancient View of the War-Herem.*" UF 21(1989): 413-20.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성서적 이해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강사문 목사

이번 이라크 전쟁은 미영 연합군의 최첨단 무기로 이라크를 공격한 지 불과 3주 만에 수도 바그다드가 점령되고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세계는 예상 외라는 반응 속에 이번 이라크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힘이 정의라면 승자가 활개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떻게 호언 장담하던 이라크 수비대가 전쟁 한 번도 못해 보고 소리없이 사라졌는가? 연합군의 첨단무기에 따른 위력과 충격은 너무나 컸다. 소위 이 충격과 공포의 전

■ 약력 : • 히브리대학교 졸업(Ph. D.)
•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술정보원장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쟁을 세계 위정자들은 어떻게 실감했을까? 이라크의 패배로 중동의 이슬람권 국가들은 물론 미국에 적대적인 나라들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전쟁 중 무고한 이라크 사람들이 수백 명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해 고통을 받고 있다. 파괴된 이라크 국토와 자연의 황폐화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부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인가? 옛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후신이라던 후세인 대통령은 하나님의 적인가? 이번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인의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위한 것인가? 유엔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수행한 미국은 정당성이 있는가? 세계인들의 반전 움직임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가? 미국의 전쟁 본래 의지는 대량살상무기의 제거와 독재자의 퇴출에 있었는가 아니면 석유 사용권에 있었는가? 어쨌든 후세인은 패자로 말이 없고 승자인 부시는 전쟁 종식을 선언(2003년 5월 1일)하고 중동의 세력 재편성을 주도하여 앞으로 미국의 세기를 조성하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둘 때, 전쟁은 평화를 위한 것인가? 평화는 또 다른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닌가? 우선 전쟁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살펴보자.

I. 전쟁이란 무엇인가?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서 국가 공동체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무자비한 괴물이요 악마의 종합예술이라고도 한다.[1] 본래 전쟁이란 전쟁학자인 클라우제

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의 말처럼 "아군의 뜻을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적군을 강제로 제압하려는 폭력행위"이다.[2] 적군의 잘못도 있겠지만 우선 아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가 전쟁이다. 전쟁에는 어떤 전쟁이든 세 가지 의도가 있다고 한다. 첫째 의도는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군의 군사력 파괴이다. 둘째 의도는 적군의 영토점령으로 적군의 새 군사력 양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셋째 의도는 적군이 패했다 할지라도 적대감정이 내재하고 있는 한 전쟁행위는 끝난 것이 아니므로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전쟁과 비슷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배한 나라가 지상에서 근절되지 않는 한 잠재적인 형태로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연유 때문에 역사 이래 인간은 평화를 갈구했지만 진정한 평화를 향유해 본 적이 없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은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말한다. "그대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는 전쟁에 의해서 얻어진다"(pax quaeritur bello)는 말처럼 전쟁 없이는 평화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을 통해 얻은 "평화도 전쟁을 준비한다"(pax paritur bello)고 한다.[3]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라도 먼저 전쟁을 알고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전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

1) 강사문,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26(2002), 한국기독교학회 편, 27쪽 이하 참조.

2) C. von Clausewitz, 「전쟁론」(서울: 삼성출판사, 1977), 김홍철 역, 51-52.

3) 김홍철, 「전쟁론」 112.

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치적 욕망은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전쟁 전문가들에 의하면 역사 이래 지금까지 약 5600년 동안에 크고 작은 전쟁이 14,500번 있었고, 약 35억 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4]

인류역사에 왕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전쟁은 한 국가의 생존기능으로 정착되었다. 이는 왕권을 획득하려는 자들의 정치적 욕망에서 전쟁이 일상화되었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들간의 분쟁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발발 요인들도 다양하지만 전쟁은 국가의 탄생, 성장 그리고 지속적인 생존과 필연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고래로 어떤 나라도 전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탄생하고 번창했던 나라는 없다. 따라서 전쟁은 국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것으로 인간의 피치 못할 비극이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전쟁들은 사담 후세인의 운명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으며 역사의 방향을 결정지었기 때문이다. 전쟁이란 괴물은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하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전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생존을 위해 군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을 통해 첨단무기의 절대 위력을 목격한 각 나라들은 첨단무기 강화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전쟁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하에 기도와 간구로 호소하는 바, 전쟁을 종교적으로 이해하였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

4) 이춘근, "세계전쟁의 원인 및 유형과 그 특징을 분석한다", 목회와 신학 60(1994/6), 46-49.

으로 판단되어, 각자의 하나님께 인간의 운명을 위탁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에서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자이다(삼하 7:24-26). 430여 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42명의 왕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른 왕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둘뿐이다.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전쟁에서 왕들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은 왕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왕들에게 있어서 전쟁에서의 승패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느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다윗의 선언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듯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삼상 17:47).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블레셋 군인들)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성경은 전쟁의 승리가 군사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강조한다.

여호수아 시대에 왕은 없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한 사람이었다.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적군들을 격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수 6-12장). 그런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호수아 군사들은 그들에게 공격을 감행하였는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정복자들인가? 왜 가나안 땅의 이방 군사들은 패배했는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고, 가나안 사람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운행의 원리에서 파악된다. 이미 여호수아보다 4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약속하셨다: "네 자손은 사대(400년) 만에 이 땅(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창 15:16)."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을 지나서 즉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야 극에 달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서적으로 본다면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철권통치가 저지른 죄악이 25년 만에 극에 달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과도 유사하다. 후세인은 대통령이 된 지 3년만에 3천 명의 정적들을 살해할 정도로 잔인한 독재자라고 한다.[5]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을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확보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에는 심판을 받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사사기 3장 7-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결국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패하고 8년을 종살이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결과 사사 옷니엘

5) 교회연합신문, 2003/4/13, 522호, 9면.

을 보내어 메소포타미아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40년간 평화가 지속되었다고 한다(11절).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군사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만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은 역사를 통해 교훈한다.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이라크 전쟁에 응용해 본다면 전쟁에 패배한 사담 후세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셈이다.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상세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상세히 아시고 고통받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역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후세인의 압제를 받던 쿠르드족에게는 더욱 희망을 준 셈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부시는 선이고 하나님의 사자란 말인가?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이라크 전쟁은 지난번 걸프전과는 달리 유엔의 합의 없이 미국과 영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전쟁으로 국제법을 어긴 전쟁이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유엔헌장 51조에 '한 국가가 유엔 안보리의 사전 승인이나 적절한 지역기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위의 경우에 한해서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는 규정에 배치된다. 이는 미국이 세계 다른 국가들의 이익보다는 자국 이익을 우선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군림하면서 최첨단 무기를 활용하여 세계에 힘을 과시한 전쟁이다. 다분히 주권국을 먼저 공격한 것은 침략행위이다는 말이다. 독재자 후세인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세계가 공감하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9.11 테러에 대한 반응으로 테러에 대한 잠재적 또는 위협적 인물인 후세인을 제거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주권국가를 군사적 힘으로 침공하는 것은 국제질서에 어긋난다. 더구나 테러를 당하지도 않은 영국의 명분은 더더욱 그렇다. 경찰이 도둑을 잡은 후에는 도둑이 들었던 집의 물건에 손 대서는 안 된다. 도둑 맞은 집의 물건에 탐욕이 생기면 그 경찰 역시 다른 도둑이 되기 쉽다.

부시는 2003년 5월 1일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호에서 이라크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해 싸웠으며, 독재자는 쫓겨났고 이라크는 자유롭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지만 모든 노력은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라크인의,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인을 위한 정부를 수립하는 이라크 새 지도부와 함께할 것이며, 우리는 임무가 끝난 뒤에 자유로운 이라크를 남겨두고 떠날 것이다"라고 말했다.[6]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종전 선언에 나타난 말과 행함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겠는가? 역사를 통해 주장된 정당전쟁론의 쟁점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강제로 주입된 미국식 민주주의가 과연 민주주의인가?

II. 미영 연합군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 문제

1. 정당전쟁론의 쟁점들

전쟁이란 공격자와 방어자 쌍방간의 싸움인데 주로 공격자

6) 조선일보, 2003년 5월 3일, A15.

가 자기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대자를 공격함으로 전쟁이 발발한다. 선전포고의 구실은 자기의 이득과 주장에 있음이 물론이지만 종종 그 명분이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보전하기 위해서, 독재자, 이교도와 야만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보다 더 큰 선을 위해서,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처라고 주장한다.[7] 어떤 경우라도 강자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따른 선전포고의 명분이 누구를 위한 평화이고 무엇을 위한 정의 실현이라고 주장하든 간에 정당전쟁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아무리 좋은 명분과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강자의 부수적이고 잠재된 이득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자들이 자기들에게 아무 득도 없고 완전 희생만이 요구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 강자들의 전쟁은 정당성을 부여받고 약자들의 테러는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정당전쟁을 가리켜 양의 옷을 입은 늑대와 같다고 비평한다.[8] 역사가 강자의 변이라면 정당전쟁도 강자의 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지는 몰라도 강자는 그의 힘을 무력으로 행하기보다는 약자와의 공존을 위해 상대를 신뢰하며 협력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을까? 과연 정당전쟁이라는 전쟁의 정당성은 얼마만큼 정의롭고 정당한 것인지 알아보자.

1) 무슬림들이 수행하는 지하드도 정의로운 전쟁(justum bellum)이라고 주장한다. 전쟁이 악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더 큰 목적과 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지하드이므로 지하드는 정의의 전쟁이라는 것이다.[9] 이슬람은 초국가적 세계를 지향하는 이슬람의 집(dar al Islam)을 짓기 위해 이슬람 세계가 아닌 전쟁의 영토(dar al harb)에 불신자가 하나도 없는 다르알 이슬람으로 만드는 것이 지하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슬람법에서 지하드는 Pax Islamic을 위해 싸운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이고 정당전쟁이라고 한다. 한편, 십자군 전쟁은 Pax Christiana를 위해 수행된 성전이고 정당전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의 정당전쟁과 이슬람교의 정당전쟁이 맞대결할 때에는 어느 편의 전쟁이 정당전쟁이 되겠는가는 우리 판단의 한계를 넘는다.

기독교 역사상의 정당전쟁론은 주후 4세기부터 출발하여 암브로스, 어거스틴, 아퀴나스와 루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된 전쟁론이다.[10] 이들이 정당전쟁의 여러 조건과 대안들을 제시했으나 실천에 이르기까지 완

7) 김홍철, 「전쟁론」 17-18; R. H. Bainton, 「전쟁, 평화, 기독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채수일 역, 119, 314.

8) A. Malone, "The Just War Theory: A Wolf in Sheep's Clothing", *Studying War- No More?: From Just War to Just Peace*(Kampen: Kok Pharos Publishing House, 1993), ed. by B. Wicker, 91ff.

9) 김홍철, 「Islam 세계의 回教聖戰」 295ff.

10) 기독교에서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 것은 초대교회의 평화주의 시대를 지나 주후 4세기 경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부터 로마제국이 수행하는 전쟁을 변증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로마의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군대의 힘으로 이교도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창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정당 전쟁론을 주장한 사람이 성 암브로스(St. Ambrose)이다. 그는 로마제국의 고급 관리를 지낸 사람으로 "성직자의 의무"라는 논문에서 정당전쟁(just war) 개념을 주장하였다(이장식, "전쟁과 그리스도인", 군진신학 (육군군종감실 편, 1985), 292). 그는 모세나 여호수아의 전쟁을 예로 들면서 "전쟁은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행위이므로 전쟁은 정당하다. 그러나 성직자는 전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에 정당전쟁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주후 354-430)이다. 그는 합법적인 권위(lawful authority)에 의한 전쟁명령은 때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쟁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일종의 필요악으로 생각하였다(맹용길, "군진신학의 기독교 윤리적 과제 : 정당전쟁론을 중심으로," 군진신학 (육군군종감실 편, 1985), 171ff.; 이장식, "전쟁과 그리스도인," 293ff). 교회의 정의에 부합되며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전쟁이라면 교회는 국가가 수행하는 전쟁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하였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폭력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둘째로, 악한 집단을 징벌키 위해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집단을 개선시키고 악에서 구하려는 사랑의 동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때로는 전쟁이 평화의 수단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의 정당전쟁론의 근거는 전쟁으로 얻은 평화는 승자와 패자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불가피하게 적을 살해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인 만큼 승자도 패자와 화해하고 피차 평화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장식, "전쟁과 그리스도인", 292). 그 후 어거스틴의 이론에 덧붙여서, 13세기의 성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주후 1225-1274)는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면 정당전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맹용길, "군진신학의 기독교 윤리적 과제," 172). ① 최상의 주권을 가진 권위에 따라 전쟁을 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원인, 즉 악행을 하는 자의 잘못에 대해 공격할 수 있다. ③ 바른 의도, 즉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다.

주후 11-12세기에 수행된 십자군의 전쟁이 이슬람 교도들의 손에 있는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졌지만 정당전쟁으로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교도를 살해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수호자요, 충성된 군인이다"는 설교에 따라 싸움터에서 너무 잔인성을 드러내는 비극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고 선을 증진시킨다는 정당전쟁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게 되었다. 종교개혁 당시의 루터나 칼빈도 정당전쟁론을 주장한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루터도 일곱 가지 정당전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맹용길, "군진신학의 윤리적 과제", 174-177): ① 황제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② 전쟁은 악행한 무리들을 벌하는 것이므로 필요하다. ③ 평화의 회복과 지속을 위한 전쟁은 필요하다. ④ 방어전은 필요하며 허용되어야 한다. ⑤ 전쟁은 먼저 평화적 수단을 동원한 후에 불가피한 경우 할 수 있다(신 20:10-20). ⑥ 악을 행한 자나 공격자에 한하여 전쟁으로 응징할 것을 허용한다. ⑦ 살인자나 파괴자를 벌하는 전쟁은 정당하다.

벽한 정당성을 입증받지 못하고 있다. 주후 1099년 십자군 전쟁(1차)이 발발했을 때에도 유럽 제국의 십자군들은 자기들의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쟁으로 간주하였다. 1차 원정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1만 명 이상의 회교도들을 학살하고 생매장하였다. 십자군들은 예레미야 48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라는 말씀을 구호로 삼았다. 수차에 걸친 십자군 원정을 통하여 수백만의 회교도와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하였다. 십자군들의 주장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희생함은 물론 적군의 생명도 수없이 희생시켰다. 여기 십자군의 말처럼 그들의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십자군의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냐는 것이다. 즉 유럽 제국의 십자군 원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셨을 때만이 '여호와의 일(멜라이케트 아도나이)'이 되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수백만의 생명을 살상토록 방임하셨으며,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귀중한 생명이 무참히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셨겠는가? 그토록 여호와는 무자비한 하나님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2) 정당전쟁론자들은 어거스틴처럼 기독교인이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책임으로서 희생당하는 많은 사람을 사전에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전쟁은 정당하다는 주장하에 폭력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모세처럼 박해자의 한 사람을 살인한 것은 사랑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다. 기독교인들이 이웃 사랑의 대한 책임수행이란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다. 여기에 반해서 평화주의자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명령

에 복종하여 비폭력으로 일관하는 것이 전쟁을 막고 참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한다. 평화주의자인 요데르도 폭력에 대응하는 네 가지 방법 가운데 일곱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정당화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11] 평화주의자들은 무조건 전쟁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고, 정당전쟁론자들은 조건에 따라 피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전에 강도에 의한 희생자를 없애기 위한 선한 목적이라도 강도를 없애기 위해 무조건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화주의자들의 입장이고, 강도를 제거하기 위해 경우와 조건에 따라 힘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전쟁론자의 입장이다. 평화주의자들의 입장이 예수의 교훈과 삶에 타당한 것이라면 언제까지 얼마나 더 강도로 인한 희생을 감수해야 강도가 없어질까 하는 것이다. 강도에 대응은 못해도 강도에 당한자라도 돌봐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이다(눅 10:25-37).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에 대응하지 않고 강도로 희생된 자에게 온정을 베풀고 책임을 다한 자이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피신하고 방관한 자들인 셈이다. 서원하는 산상수훈에 근거한 스타센의 평화조성을 위한 7가지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것이 실행되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쌍방에 의해 이행이 안 되면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2]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11) J. H. Yoder, *What would you do?-If a violent person threatened to harm a loved one……*(Waterloo, Ontario, Herald Press, 1992), Expanded Edition, 30ff.

12) ① 상대국은 피차 동반자의식 속에 상대의 국경이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피차간에 상대방의 신뢰감 확보 ③ 피차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 유지 ④ 국제적 관점에서 정의 추구 및 기본권 보장 ⑤ 무기감축을 위한 조약체결 및 준수 ⑥ 상대방에 대한 비난 금지 및 개선안 마련 ⑦ 평화조성안의 보급 및 정책수립 등(서원하, 정당전쟁과 평화주의, 30에서 인용).

3) 데오도르 베버나 폴 램지 등 정당전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자들이 여러 정당전쟁의 원칙을 제시하나,[13] 얼마만큼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이루는 데 유용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다. 정당전쟁론자에 의하면 전쟁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기 위한 정당한 원인이 있을 때에는 최후 수단으로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악을 제거한다는 전쟁이 더 큰 악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당전쟁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지난 걸프전 때 이라크가 자기들의 전쟁이 이슬람교의 '지하드'(Jihad)라고 주장하지만 영토확장을 위해 이슬람 형제국인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은 이슬람은 '다르 알 이슬람'을 침범할 수 없다는 지하드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이슬람 형제국인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의 반격을

13) 베버(T. Weber)에 의해 제안된 정당전쟁론 기준(맹용길, 군진신학의 윤리적 과제, 177)이 소개된다. ① 전쟁에 호소하는 표준 : 정당한 의도(정의, 평화, 질서회복), 정당한 원인(자체 방어), 적임의 권위(국가 통치자), 최후 수단(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전쟁), 승리의 합리적 희망 ②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통제하는 표준 : 비례원칙(선한 결과가 악한 결과를 능가할 때), 분별원칙(침략전쟁 금지, 비전쟁요인 폭격 금지 등). 신원하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위와 유사한 기준으로 홀메스의 8가지 정당전쟁론의 원칙을 소개한다("정당전쟁과 평화주의: 비판적 검토와 변혁적 모색", 폭력과 전쟁 그리고 평화, 제3차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학술대회(2002년 5월 4일) 보고서, 21.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하드 개념은 초국가적 이슬람 세계를 기초로 해서 생겨난 것이므로 개 국가의 이익과 편익에 상충되는 국가적 개념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당시 미국과 다국적군의 전쟁은 정의롭고 정당한 전쟁이었는가? 다국적군의 목적은 유엔 결의에 따라 쿠웨이트 해방과 중동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이라크를 응징하는 것으로, 정당한 행동이라고 했다. 물론 쿠웨이트 해방과 중동평화라는 표면적 이유도 있겠지만, 실은 미국이 중동에 군사기지를 확보하는 것과 미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석유 획득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이 종전처리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참전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체데크)와 정의(미스파트)에 의해 출발해야 하며, 자국의 어떤 이익이나 군사적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출발되고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이라크 전쟁은 힘의 논리에 따라 최첨단 무기의 힘에 의존하는 전쟁이었으므로 앞으로 각국의 최신무기를 구입하려는 무기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 무기와 힘에 의한 해결은 더 큰 갈등과 분쟁을 초래한다. 성경에서의 '전쟁의 승리'는 무기나 병력의 우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와 간섭에 있다(출 14:14; 삼상 17:47; 대하 20:15-17).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의 역할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수행되는 전쟁이므로 인간의 무기에 의해서 주도되는 전쟁은 성서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공격전보다는 주로 방어전에 치중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라크 내에서 대량학살 화학무기를 발견하지 못한 미국은 그들의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2.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정당성 주장

1) 군사적 힘으로 정복한 정복자는 승리 후에 정치적 승리와 경제적 승리를 차지한다. 지금 군사적으로 승리한 미국은 경제적 승리를 주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등 중동 질서 개편에 새로운 박차를 가한다. 그 결과 힘의 균형이 사라졌다. 이 지역의 평화가 미국의 힘으로만 주도될 경우 세계의 힘은 미국 중심의 단극(unipolar)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단극체제하에 유일 초대강국이 된 미국이 9.11 테러에 대한 전쟁의 일환으로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미국세기(American century)를 구가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나타났다. 이는 유일 초대강국으로서 미국은 자기들의 중동 세력 재편성을 위한 시나리오가 성취되었고, 이제부터 중동의 세력 판도를 좌우할 힘의 군주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확정되었다. 2003년 4월 30일 바그다드의 후세인 궁에 나타난 미국의 국방장관 럼즈펠드는 점령군의 사령관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라크와는 관계가 없는 미군 최고 책임자가 침략자가 아니고서는 주권 국가의 대통령 궁에서 전쟁 상황보고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미국의 안목에 악의 축으로 보이는 중동 국가들이나 타지역의 나라들이 앞으로 괴멸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힘만이 정의로 인식되는 세계는 성경의 세계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자와 가난한 자를 더욱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출 22:21-27). 미국의 승리로 얻은 평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Pax Americana)이다. 이런 팍스 아메리카나는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아니

다. 팍스 로마나(Pax Romana)가 옛날 로마인들만의 평화인 것처럼, 미국인들만의 평화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될 수 없다. 가난한 나라와 약한 나라에도 평화가 있어야지 강한 나라와 부자 나라에만 편중된 평화는 성경의 샬롬(Shalom)이 아니다. 그러므로 악의 축을 제거하려고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은 아프카니스탄 전쟁처럼 일반 왕들의 전쟁으로도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라크의 후세인이 양민을 학살하고 공의를 실시하지 못한 독재자 또는 부패한 자이고 그의 정권이 부패한 정권이라는 전제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멸망했을 때에도 호세아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로 또 악을 행하고 공의를 실현하지 못한 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왕하 17:1-23).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후세인을 심판하셨고 부시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은 부시의 메시아적 사명에서 엿볼 수 있다. 이번에 부시는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성경과 기도를 통해 얻은 후에 전쟁을 수행했다고 한다.[14] 이라크 지도층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 악을 박멸하여 이라크인들에게 자유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신에게서 받은 계시라는 것이다.[15] 이런 주장은 후세인이 독재자로서 공의를 실현하지 못한 사울과 같은 자라는 전제하에 부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라는 것이다. 김태진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깨달은 것이라며 이라크전에 대해 재미있는 해석을 한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들어 부시도 악인이지만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신 도구라는 해석이다.[16] 부시가 후세인보다는 덜 악하다는 논리에 따라 부시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더 악한 후세인을 심판했다는 해석이다.

2) 한편 정당전쟁론자들도 인간의 생존권(survival) 보장을 위한 방어 전쟁은 가한 것으로 말한다. 이는 윤리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의 기준이기도 하다. 지구촌 모든 사람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과 삶이 보장되는 조건이다.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세계적 정의가 공존의 기준이 되는 삶이 지상의 과제이다. 이 공존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목표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다같이, 남과 북에 있는 자가 다같이,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사는 삶(life together), 더 나아가서는 동물과도 사이좋게 살 수 있는 공존의 삶이야말로 성경이 추구하는 메시아 왕국의 삶이다(사 11:1-9). 이것은 서로 있는 것을 주며 공유하는 삶이므로, 여기에 빼앗고 죽이는 전쟁은 있을 수가 없고 평화만이 깃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서로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공존의 삶을 어떻게 하면 영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생존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존권 보장은

14) 박종화, 군복음화보, 173호 (2003/3/31), 1.

15) 한완상, "아 기독교인임이 부끄럽다", 기상 533호 (2003/5), 238.

16) 교회연합신문, 2003/4/13, 522호, 9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생존권 보장이 아닌 전쟁은 최후의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혹시 잠정적으로 정당화된다 할지라도 생존권 보장이 아닌 전쟁은 계속 비극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존권에 근거하지 않은 전쟁은 어떤 정당성이라도 그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생존권 보장이라는 것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어떤 정당성 주장에도 근거가 빈약하다. 국방비 500조의 강대국 미국이 국방비 1조 정도의 약자 이라크에게 지리적 또는 군사적으로 생존권 위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정당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기초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기초하지 않는 전쟁은 지배논리에 근거한 정복 전쟁일 뿐이다. 역사에서 많은 왕들이 힘의 논리에 따라 많은 정복전쟁을 수행했다.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전쟁은 약자를 보호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생존권을 보장하는 전쟁이다. 전쟁의 용사(출 15:3)이신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적들과 대항하여 싸우신다. 이런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철학(historiosophy)이다.

그러므로 전쟁에 대한 성경의 논거는 전쟁 당사자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문제이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 참모는 링컨에게 요청하기를 우리 북부군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하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링컨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를 따지기 전에 누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섰느냐에 따라 승리가 결정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17] 성경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반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교훈한다. 국제사회에서 힘이 정의이고 힘의 논리가 세계질서를 좌우한다는 생각은 즉 승자도 곧 패자가 된다는 역사의 공리를 증거하게 된다. 더욱이 전후처리 과정에서 이라크로 몰려가는 미국의 정실주의자들이 보이는 태도나 각국의 태도는 참전이건 반전이건 간에 이번 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돈의 전쟁(錢爭)이란 평가이다. 이런 관점에서 과연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정당성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4)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미국에 의존적이다. 의존적인 입장에서 상대국인 미국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후세인도 처음에 미국에 의존했다가 배신한 결과로 비운을 맞이했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완전한 독립일 경우는 제소리를 내도 별 지장이 없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의존적일 경우는 의존국을 배신할 경우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호세아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자 얼마 안 있어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거역하자 곧 망했다. 강자의 홍수 앞에서는 대등한 대결보다는 옆으로 피해야 산다는 것이 동양의 지혜이다.

17) 박종화, 군복음화보, 173호(2003/3/31), 1.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정신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 우선 독립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나 군사적인 면에서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 의존성을 탈피하고 독립할 때까지는 위기시에 의존국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미국이 가면 일본이 올 것이므로 그 전에 모든 면에서 자주독립을 해야 한다.

III. 평화

전쟁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처럼 평화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18] 구약성경에서 평화에 해당되는 단어는 샬롬이고, 신약성경에서는 에이레네이다. 샬롬이나 에이레네란 말은 단순히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온전, 빚의 청산, 복종(shalem), 또는 강건과 축복 등 폭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첫째로 샬롬이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삿 21:13; 삼상 16:4-5).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는 역사의 주관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 후 전쟁이 끝나자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선포한다. 선지자 이사야도 평화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으로 언급한다: "그가(하나님)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사 2:4; 4:3). 평화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듯이 평화란 하나님의 평화(빌 4:7; 골 3:15)이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롬 15:33; 빌 4:9), 또는 평화의 왕(사 9:6)이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므로 평화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주전 8세기 말 유다의 아하스 왕도 아람과 북왕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을 거절함으로 평화를 얻지 못하고, 전쟁의 희생물이 되었다. 이런 평화가 없음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엔 샬롬이라고 했다(48:22; 57:21 등).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부패한 백성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 위장 평화를 전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렘 6:14; 8:11).

두 번째로 샬롬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알라신을 믿는 교를 가리켜 이슬람교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살람의 부정사로 복종하다란 뜻이다. 또 이슬람교에 속한 자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살람의 현재분사로 복종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신에 복종하는 것을 기본신조로 삼는다. 메카를 향해 성지순례를 하던 무슬림들이 사고로 수백 명이 죽어도 불평없이 '엔살라(신의 뜻)'라고 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순교로 승화시

18) 강사문, 「구약의 하나님」(서울: 한국성서학 연구소, 1999), 282쪽 이하 참조.

키고 순종하는 미덕을 보이는데, 여기서 무슬림들의 평화관을 엿볼 수 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갈등과 반목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았으므로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고 부자가 모두 죽음을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삼상 31장).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경고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어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삼상 13:13-14). 인간은 하나님과의 상호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요청된다. 복종에서 평화가 유지된다. 따라서 평화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세 번째로 평화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주어지고 공의, 복, 구원으로 완성된다.[19] 이사야 45장 7절에서 하나님은 평화도 만드시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이시다. 여기서 큼란 이사야 사본에는 살롬 대신에 토브로 나타나므로 라아(악)의 대칭은 토브인 것으로 보이나 라아의 대칭이 살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본문 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평화의 조건은 하나님의 현존에 있기 때문이다(민 6:26; 대상 23:25). 하나님의 현존은 계약 아래 있는 인간의 의로움에 의존한다. 옳게 행하는 바 의로움에 평화가 깃들기 때문이다(사 32:17). 평화란 의미에는 옳다는 뜻(말 2:6)과 신실-성실하다는 뜻(삼하 20:19)과 진리의 뜻(에 9:30) - 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평화란 계약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한다는 말에서 비롯된다(사 59:8).

19) E. M. Good, "*Peace in the OT*", IDB 3, 705-6.

한편 평화란 하나님과의 파기된 계약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계약의 말씀을 파기할 때 하나님은 그의 평화를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준수 여부에 따라 평화가 조건적으로 존재한다(렘 16:5)는 말이다. 여기서 평화와 함께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주어진다. 안전과 건강, 행복과 기쁨 모두가 평화의 요소들이다.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역사는 물론 지난 기독교 역사 이천 년을 보아도 이스라엘 땅을 기독교인들이 관리하고 통치하던 시기는 기독교 로마 시대와 십자군 시대를 합친 오백 년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사분의 삼에 해당하는 시기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통치했고 전쟁의 와중에 있었으니 이러한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평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것은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평화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파기된 계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전당이다(Beth-shalom).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살렘)의 기초(예루)가 된다는 말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므로 평화가 늘 깃드는 장소로 이해되어 왔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 고향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평화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엔 평화가 있으니 평화가 있는 곳엔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27:5)……그 장막이 또한 살렘이 있음이여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하나님)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76:2-3). 이런 견해는 바울 사도에게도 전승되었다(갈 1:3).

그러나 역설적(ironical)인 것은 평화의 전당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수없이 전쟁의 와중에 휩싸였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점령당했다는 점이다.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와 남쪽의 이집트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 대륙의 힘의 충돌로 인한 전쟁의 와중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되었으므로 이스라엘 역사는 평화의 역사라기보다는 전쟁과 파괴로 점철된 고난의 역사였다. 그래서 과거에는 평화를 향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주어질 하나님의 평화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주어질 평화라는 의미에서 종말론적 평화(Eschatological Peace)로 이해된다. 종말론적 평화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평화는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목표이며 실체이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목표를 향해 이루어지고(shalem)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 평화는 가시적일 뿐만 아니라 신비와 초월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신비와 초월에까지 참여하는 삶이 요청된다.